

易々치 못하도다此間에相距가四五百邁羅假量이로다
 馬克이雙手로面을捧고歎歎히泣호야曰然則我が、장스奈何호고我が、장스
 奈何호고老嫗一호호低語호야曰可憐호다是兒여我が力을竭호야汝를慰호져호
 는實로汝를爲호야排遣호語가無호니遺憾이殊深호도다然이호老嫗가言이此에
 至호더니猛然히想起호야曰是호다此門으로出호야一直히行호면第一十字路口
 가見호리니轉灣호야左로向호면第二號門牌에高大호房屋이有호니、곳此地의
 運送局이라老身이今日에探問호족該家主人行商을兼作호야明日에、장스他
 苦孟으로往호시車數十輛과牛數十首와販豎와走率이道에絡繹호니或該輩와相
 商호야萬一汝를繫호고同行호면、호호好機會라時가이의夜半이니速히往호야彼
 로더부러相商호라否호족明早에起程호면相左될가恐호노라馬克이急히應호야
 曰深謝々々로소이다호고、곳旅囊을負호고如飛히去호니二分鍾을閱호야其處
 에卽至호야見호니數十盞角燈을縣호얏는디烟이薰호고油가灼호야闇澹히光이
 無호지라馬克이、곳趨入호니初에昏黑호야見호비無호듯호더니既而호眸을凝

호야細視호족役夫數十人이魚貫호야眠호호디軒聲이四起호고并히數十輛의貨
 車에穀物을堆積호야登程을豫備호얏더라未幾에呼哨一聲에數十勞働者가臂를
 攘호고起호야、다만短衣一襲만着호고奔走跳躍호는디敝垢黑色의外掛를衣호
 고巨形黃皮의半靴를穿호고髭髯이蓬々호야面上에、空隙이幾無호黝黑大漢이
 左右로指揮호야其首領된者가거늘馬克이前에趨호야淚를垂호고求告호야曰小
 子一意大利로由호야此에來호야母를尋호더니母가、호他苦孟에作客호얏다호
 니此에距함이甚히遠호지라可憐호小子가單身苦獨으로相識호人이絶無호오니
 幸히長者는垂憐호시와、시러금驥尾에附호야、호行호야彼處에至케호시면感
 호야또朽처아니호리이다

渠는該處에서商隊頭領으로稱呼호는卡撥他斯라渠가兩眼을圓睜호니閃々히光
 이有호야首로自호야足에至호기호지馬克을審視호고頭를掉호며不顧호야曰我
 等은此間一席空地에足히、호汝를容호일슈업도다호니馬克이言을聞호고大窘호더
 니既而호、호乞호야曰小子一顛連함이殊深호나然이호、호히려旅囊中에利羅

十五枚가剩하얍기敢히奉呈하야律貼의資를作하시고旅行의際에如何勞劬作
 苦의事를勿論하코, 드可히相助할지며兼하야途中에서柴를打하코水를汲하며
 牛馬를芻秣하코, 또一切勞瘁한事는, 다辭치아니할비며또, 需하느바가甚微
 한즉, 다만少許의麵包만得하야도, 攄可히飢를充하리니, 오작願컨디諸公은
 我를挈하코偕行하면我가實로長者의情을感하며實로長者의慈悲를感하리이다
 하니卞撥他士가重히, 다시馬克을注視하코溫語로謂하야曰此間에實로一席의
 空이無함은我가汝를誑함이아나오, 攄但히此處아니라我等이또한他苦孟으로
 直達함이아니오桑谷까지至하다가, 分路하리니此時能히汝가途中에서相
 別치아니치못하리니汝一能히數百里되는荒郊漢野를步行하리오馬克曰無妨하
 나車로行함이旅行日字를減코저함이며我도또한可히徒步하리니我는如何
 함을勿論하코, 다만前路를得達하기만, 求하노니願컨디長者는見憐하야一
 席의惠를賜하사면我가實로長者의情을感하며我가實로長者의慈悲를感하리
 니此處에서幸히我를棄하코去치마소서卞撥他士曰爾가我等二十餘日의路

程이有함을知하느니馬克이曰知하느이다曰爾가此路에서奔走함이, 不極히
 困難함을知하느니馬克이曰一切艱辛함을, 다忍受함을願하느이다曰爾가半路
 에서告別하야, 尙未單身徒步로蹣跚히獨行함을知하느니馬克이曰請컨디長者
 는顧念치마소서我가膽力이畧有하니다願컨디一日이라도吾母만見하면, 비
 록萬死하야도不懼하느니로소이다卞撥他士, 이에角燈으로馬克前에近提
 하야其顔을細照하코熟視할지半晌에曰諾다하니

馬克이卞撥他士의手를捧하코, 더부러吻을接하코吮하니卞撥他士다시馬克
 다려謂하야曰今夜에汝는暫間我的車上에捲伏하얍다가明晨四點鐘에行을啓하
 리니맛당히小心으로俟候하코臥를貪하야時를失치말지어다하코叮囑而去하더
 라明朝四點鐘에殘月曉星은遠天에依稀하얍는디行商隊의車가一々히排列하야
 車聲은轢々하코馬聲은蕭々하코人聲은喧嘩하야街衢를填塞하코鄰屋을震撼하
 는지라每車에壯牛六頭를駕하코, 다시六頭로各車의傍에預備하야更換케하야
 隨行하니馬克이旅囊을枕하코仍하야車의一隅에捲伏하야重復히夢에入하더니

紅日이 身에 照함이 遽然히 驚覺하니, 맛츨 全隊의 休憩할 時를 值하니 渠等이 圍坐하야 火를 向하야 腥을 割고 羶을 啖하야 大碗에 酒를 喝고 大塊의 肉을 切하야 一霎時에 風이 殘雲을 捲하듯 傾刻에 盡하고, 다시 暫間 休暇하다가, 다시 赶路하니 嗚呼라 行旅가 行軍함과 如하야 規則이, 이의 正하고 紀律이, 又嚴하야 비로소 相安하고 互益하며 不然하면 凌亂히 序가 無하며 擁擠하야 次를 失하즉 甚히 殆하고 殆하더라

彼等이 每日 五點 鐘에 上路하고 九點 鐘에 休息하고 午後 五點 鐘에, 다시 行을 啓하고 夜 十點 鐘에 止宿하야 日로 例를 作하더라 依內士等(隊의 小頭目)은 馬를 跨하고 隊를 挿하야 鎖尖으로 毗壯牛를 刺하야 其行走를 督하고 馬克은, 이에 爲하야 鑿을 執하고 火를 打하며 牛馬를 飼하고 角燈을 磨하며 水를 汲하야, 人畜의 用을 供하더라

第四章 沙 漠

光景이 眼을 射하고 歲華가 流함과 如하니 渠等이 視하즉 泡影幻形인 듯하며 浩々

흐 平沙가 一望하미 垠이 無하야 連陰이 重暝하고 爰하야 日이 見치아나하며 又 或褐色 矮樹의 林間에 或三四人가 一小々 村落을 成하얏스나 然이느 모름즉이 僅少하야 由此至彼에, 又 尙荒涼하고 寂寞하얏름이 又 道中에서 慄慄하 綠林과 響馬가 出沒하야 盜馬賊이, 尙 尙馬數 十匹을 盜하고 旋風갓치 疾驅하야 過하면 可히 追逐치 못하고 日復日에 海上에 行하느니 비하면, 다시 無味하더라 幸히 數日內로 天氣가 快晴하야 雨雪이 道에 載하느 苦는 無하느 然이느 派內士等이 馬克을 待함이 日로 더 又 嚴厲하야 使役함이 奴隸보다 甚하야 或 迫脅하야 過量을 重物도 荷負케하고 或 數十里를 奔馳하야 遠處로 브터 水를 汲하야 歸케하니 馬克이 又 數日來로 車軸의 振搖하미 되야 播顛함이 萬狀이라 夜에 至하야 能히 穩睡치 못하고, 又 時로 旋風이 起하느 處에 塵沙가 天을 漫하면 眼을 能히 開치 못하고 呼吸이, 又 靈치 못하더라 嗚呼! 라 馬克이 過度를 勞動으로, 又 加하야 睡眠이 時를 失하고 奔走하야 命에 疲하며 飲食이 節이 無하고, 又 朝晩에 人의 嗅罵凌踏을 受하야 顛連困辱한 狀이, 드디어 日로 著하니 下撥他士가 時로 馬克을 爲하야, 或 慰籍할 外에는, 다 過問하느 者

— 無_ㅎ으로 馬_ㄱ의 身_心과 氣_力이, 드디여 全_히 消_耗하야 形_神이 憔悴_하고 面_目이 黧_黑하야 滿_身이 藍_縷하니 僅_히 瘦_骨— 把_만 裹_하 屍_體이 此_라 或_車 隅_에 蝟_伏하야 人_을 背_하고 淚_를 搵_하니 朝_夕으로 此_磨 折_을 受_하미 日_로 漸_히 衰_弱하고 日_로 漸_히 沮_喪하야, 夢_魂의 驚_嚇을 定_하즉 曠_野가 彌_漫하야 一_望하미 際_涯가 無_하니 前_日 地_中 海_로 航_行하으로 一_同히 涯_涘가 無_하지라 無_聊하 際_에, 欸_々 喃_々히 自_語하야 曰_喉하다 我_가 今_者에 朝_暮를 保_치 못_하리니, 讎_日 沒_前에, 杖_之 路_隅에 倒_斃치야 닐_줄 知_하리 오_하더라 馬_ㄱ이 勞_働이 過_度하_고 販_豎 僮_夫의 虐_待를 受_하미 加_하야 痛_苦하야 意_를 失_하으로, 呖_馬 克_이 病_에 罹_하얏는지라 三_日 夜_間에 狂_熱이 烈_燒하_고 頭_面이 緋_紅하야 終_日을 車_隅 一_席의 地_에 薄_被 一_幅을 覆_하고 呻_吟하_니 慈_善하_나 下_撥 他_士— 時_로 飲_料를 齎_來하야 馬_ㄱ을 爲_하야 解_渴케 하_고, 又_或 脉_을 按_하야 調_息하_{더라} 馬_ㄱ이 昏_沈 顛_倒의 中_에 此_身이 已_의 有_하비 아_닌 듯_하야 絕_望하 餘_에 心_中과 口_中으로, 다 만 母_만 思_하야, 欸_々 呼_하야 曰_母여 々_々 兒_가 今_에 死_에 瀕_하얏스니 母_는 其_來하야 救_할 지어 다 哀_哉라 我_의 母_여 兒_가 疾_病이 有_하면 母_가 拊_咻하_{더니} 讎_지 兒_가

母_를 見_치 못_하고 逝_할 줄 知_하얏스리 오_痛哉_라 我_의 母_여, 母_가, 又_하하, 尙_憐 愛_하하든 바 嬌_兒가 今_日에 路_傍에서 倒_斃하_를 知_하는_가 馬_ㄱ이 語_를 罷_하미 雙_手로 腦_을 紐_하고 天_을 向_하야 祈_禱하_니 他_念이 無_하야, 眛_瞑 目_을 待_하는_者와 如_하더라 雖_然이_는 深_謝하_노니 下_撥 他_士君_의 護_持하_고 救_覆하_{으로} 病_象이, 寺_러 金_機를 轉_하야 病_體가 漸_々 痊_하니 明_日의 大_難인_즉 渠_의 旅_路가, 杖_之 大_隊로 더_브러 分_別하야 單_身 孤_影으로 亞_美 利_加 未_開 關_한 地_에 躑_躅하_리로다 行_々 重_行々_하야 車_塵과 馬_後에 奔_馳하_者— 兩_禮 拜_의 餘_라 噫_라 此_時는 桑_却 谷_路라 路_가 他_苦 孟_{으로} 比_相 岐_한 處_인 卽_馬 克_의 杖_之 袂_을 離_할 時_라 下_撥 他_士— 이에 馬_ㄱ다 謂_하야 曰_馬 克_少 年_이 여 此_處가 君_{으로} 與_하야 相_別하_處라 하_고, 이에 遵_行 路_를 指_示하_니 馬_ㄱ이 背_에 旅_囊을 負_하고 跛_踣하_야 行_할 處_를 相_處하_지 十_餘 天_에 漸_々 親_密하_{더니} 今_日에 相_別하_니 크_게 依_戀하_態가 有_하야 下_撥 他_士— 馬_ㄱ의 頸_을 撫_하고 馬_ㄱ은 其_手를 捧_하고 淚_를 揮_하을, 마_지 아_나하_며, 又_彼와 如_하 酷_虐이 無_狀하_던 派_內 士_等도 馬_ㄱ의 躑_々 獨_行하_는 可_憐하_狀을 見_하고 多_少의 憐_憫하_感이

無치 못하더라嗚呼라可憐호馬克이여、드디여數十同事와共處호든夫役으로더
 브러一々히辭別호시馬克이手를舉호야禮를作호니塵烟의影裏에全隊車馬의蹤
 이見치아니호는지라岐路에行立호야目으로斜陽을送호고首를垂호고語가無호
 야、이에囊을負호고行商大隊의反對方으로獨步호야、嗚他苦孟을指호고進發
 호더라

別호以來로브러足히窮途에慰籍호비無호고幾日을荒郊에서行于호니、오작見
 호는北山巔에積雪이老叟의白髮이盈顛호과如호고遙綠이天을連호야茫茫히際
 涯가無호고層巒疊嶂이蜿蜒히奔赴호미古鄕에入호과如호니亞而蒲士를驀然히
 想起호미桑梓의感을勝치못호다라噫라此橫亘호山巔이南으로鐵拉德耳弗哥
 로、브러北으로北氷海에達호니實로一百十緯度를連亘호니世界에第一最長호
 安建斯山이며馬克이久히長途에歷호야其氣候의感覺호이身體에甚히適合치 못
 호며北을向호야漸進호는故로其日이赤道에近호야處々에見호즉二三十家가部
 落을自成호야居然히또호市鎮이有호고店鋪가林立호故로一路에食物을購買호

으로飢餓의歎이無호는또嘗見호즉騎馬호旅客이隊를結호야行호고其土人은婦
 女와小兒가地上에蹲踞호야面에灰色을作호고眼尻가尖銃호고顴骨이高聳호야
 馬克의來호을見호고注視호미驚詫호는者와如호야自動人形(歐洲의傀儡)이首
 를回호고目을送호과如호니此는、다亞米利加印度人種이러라

第一日은其足力을盡호야、嗚行호다가夜에樹陰의下에眠호니涼月이身에滿호
 고冷露가衣에滴호며第二日은進行호路程을減호얏스니氣力이、또호疲弱호야
 靴가破호고趾가傷호얏스며胃中에는日로惡食을進호야、더욱薄弱호더라夕陽
 이低우下호의渠가一種恐怖호念이更出호니蓋馬克이意大利에在호時에父老의
 此此地에毒蛇가甚히多호을久聞호자라宵分에至호야聞호즉四壁에鼾聲이忽起
 호거늘馬克이聞호고心膽이碎裂호야急히足을拔호야林外에趨出호니毛骨이寒
 戰호야齒가振然히聲을作호며四顧호미月影은地를瀉호야悲涼이無限호지라馬
 克이一步에一顛호야默爾히泣을噉호고繼호야念호되上帝가生을好호시니、비
 록我를恐怖케호시는다만早日에母를見케호시면此恐怖의報酬가또호相當호다

하고思念이此에至하미勇氣가恢復하야前보다百倍가生하니 드미여一切의恐怖
 念을棄하고全身을阿母에기注하야因憶하미我의母가瑞那에서啓行하든日에
 丁寧히囑付하던語가何며또憶하미兒時에一燈과一榻으로母가女紅을作하야
 兒의眠을伴하든情境을想像하고、默然하다가、스스로語하야曰我가今日에竟히
 我母를能히得見할가今日에我의旅路의目的을得할가噫라母여、斯時에馬克이
 步를奮하야進할시或怪醜호樹林도穿하고或廣大호甘薯의圃도過하며或平野를
 一望하미碧음이天際를連하야空을劈하고安建斯의雄姿와勝境이眼前에突兀하
 더라四五日로부터一禮拜間을至하미馬克이筋이疲하고力이盡하야意氣가頹喪
 하고足趾가血이殷然히靴襪々지沾하얏더라

一日은馬克이人語를忽聞하니此地가他苦孟을距함이五十邁羅가不過하다하거
 늘馬克이大喜하야叫絶하미此一轉瞬間에得達하듯하야曩時에失호바氣力이悉
 히恢復하야疾趨하고過하니此는一時에誤聽함인故로數刻을及치 못하야其意氣
 가索然함이馬克을棄하고他로往함과如하더라夜來에다시小溪의側에倒臥하야

星斗를仰視하니空際가燦然하고虫聲이四起하며怪鷗가悲鳴하느니라馬克이天
 을仰하고歎息하야、또思하미此夜此時에我의母도、또호此와同히天을仰하고嗟
 하느가母여母여母가今日에何處에在호고母가今日에何事를作하느고母도、또
 호兒의顛苦하야告할디가無음을思慮하느가母여또호爾의馬克이我의母膝下
 에、장스依코저하야來음을知하느가

可憐하다馬克이여可哀하다馬克이여渠가此瞬息間에在하니其母의狀態如何와
 起居如何함을描摹하야一見치 못함을恨하고鬼神의脚步를假하야數分의鍾으로
 急驅하고疾馳하야、此其母의側에達하지 못함을恨하느正히渠母가美哥依內士
 의家中에病臥하야斗室에서呻吟하고臥榻의間에서轉輾함을知치 못하느도다渠
 의母를美哥依內士의一家가愛悅치아니할者—無하야其主人一家가突然히不諾
 塞立斯를由하야遷去하니渠母가時에、이其病을權호지라他苦孟의空氣가潔淨
 하야病體에는、또호有益하느然이느故郷으로、더부러音問이頓絶하야、또常
 히不諾塞立斯의從兄의게書를致하느竟히廻響이無하니意謂하미、반다시非常

을意外的變이有하다야日夕으로焦慮하고、또時로凶耗가來함을望하야終日
 에懸々할心目과憧々한臆懷로病勢가、더욱危篤하니嗟呼—라此種의原因으로
 써危險한病症을得하야竟히急性貌倭偻(病名)이란症을罹하미姓名을保全코저
 하야外科醫의割紮하는手術을施하시此時는正히馬克이曠野에僵臥하야天을仰
 고歎息하야涕를垂하고母를呼호際라美哥依內士의主人夫婦가病榻의側에
 立하야慈愛의語로서百計로慰勸하고百計로解導하되渠母가意를執하고肯히此
 身으로써外科醫의鋒刃을試코저아니하더라

哀痛다此病母여淚를垂하고其主人婦의게告하야曰우리親愛하시느主人이
 며、우리親愛하시느主母여妾이、우리主人의夫婦에게見愛하심을承하야身이
 糜하고骨이碎하드리도、嗚圖報함이無하느然이느垂死할人으로써自分하되能
 히更生치못하리라今日에氣力이、다盡하느萬一療治하면、만다시外科醫의刀下
 에死하리니願컨디主人은我를見憐하소서人生百年에誰가一死가無하리오마는
 妾도또한生命을愛惜하느者가아니라願컨디痛苦를稍紓하고我를平和의死를與

하소서且我が故郷으로音問을得지못하니知치못케라、무슨凶耗가有하져、곳
 奄々히長逝하면、또한目を瞑하기難하도다主人夫婦—다시婉曲의語로解勸하
 야曰汝는煩慮치말지어다汝의氣力이、오히려可히支持하리라我が當히人을使
 하야瑞那에直達하야、嗚其確實한音信을得하면數日內로爾の家書가、만다시
 至할것이오愚의夫婦는君이早日에痊可함을冀하야外科醫의施術에就함을勸함
 이오、또汝의一身만爲하야計함이아니라、곳爾의一家가엇지君의게다仰賴치
 아니하리오主人의夫婦가其臥榻의側에坐하야百計로勸誘하야寬釋코저하느誰
 가一家가仰賴란說을聞하고、도리혀渠母의悲痛함을刺激하고渠母의煩惱함을
 轉增할줄知하얏스리오籍然히淚가下하야枕衣에濕하야透하느니라耳를側하
 야、嗚聽하느聲이虫吟의細와如하야曰噫라我兒여我兒여汝等이、오히려世間
 에生存하얏느나爾等이또한汝母가장스此世로더브리長辭함을知하느나深히我
 主人에謝하며深히我主母에謝하며深히此一家에我로더브리親愛하느人의게謝하
 노니妾이死함은運命의招하느니라願컨디醫生을延하야割術을施치말고我로하

야금安然히長逝케할지어다主人의夫婦가病婦의手足을撫摩하고曰爾는、
 懷를寬호지어다爾는도懷를寬호고過히悲切말지어다言을已호고見호즉其精神
 이疲倦호고氣息이細微호야口를合호고眼을閉호며沉々히睡去호니狀態가死者
 로더브리無異호지라主人의夫婦가憐憫호고悲惻호心을勝치못호야見호니燭光
 의下에此를可히敬호고此를可히愛호고可히讚歎호慈母의病容이淒楚호기萬
 狀이니嗚呼라此婦女一纖弱호身으로此一家의困難을紓코저호야勞瘁호를惜치
 아니호며辛勞호를辭치아니호고此生命을二萬里外異郷에隕호야、한갓一杯黃
 土와三尺孤塚으로호야금此意大利의婦人으로新世界에遺蛻케호니魂이여知호
 의有호면大西洋을渡호야、此歸호리로다噫라主人의夫婦가、은득嗟惋호야、此
 호디正直慈善호들이彼婦人과如호者一시러금首邱호야써沒치못호니、엇지彼蒼
 의諒치못호리아너리오

第五章 深 林

明日에晨光이意微호니意大利의少年馬克이背에旅囊을負호고體가偃倭호며足

이跛躄호야、此亞爾然丁、共和國의、가장繁華호고、가장發達호市他告孟으로
 至호니心中이驚躍호야默禱호디、다시哥而特李라落色利亞와不諾塞立斯市의
 前轍을重蹈치마옵소서호고前途를向호니馬路와同히平坦호야涯際가無호고白
 髮호彫欄이鱗次로櫛比호야到處가皆然호고、또公園曠地가有호야空氣가清新
 호고花香이馥郁호야晴空高爽호고街衢가通明호니意大利에在호時의未見호든
 비라漸히路口에入호니悸호氣가來襲호야不諾塞都에入호時와彷彿호며彷彿히
 人語를聞호니汝母가此間에不在호다汝母가此間에不在호다호는듯호더라馬克
 이一路를行호미家々の戶口와處々の窓屋을다熟視호고審諦호야一時의錯過호
 을防호고往來호는行人을、다注目호며行호니戶口에立호얏든婦人이馬克의衣
 服이破敝호고手足이泥塗호를見호고遠路의作客호는旅兒인줄知호고斯少年을
 目送호며斯少年을心憐치아니호는者一無호더라俄而오一小々飯店을見호니其
 簷下招牌의上에意大利文字로、此書호고裏間에、호眼鏡을高戴호老者가白絹衣
 服을着호兩婦人으로더브리坐호얏는지라馬克이遲徊호고疑懼호미久호고、또

久^하야, 비로소決心^하고前^에進^하야口^를啓^하야曰敢^히長者^의問^하노니兒^의技師美哥依內士의家^를指示^하소서^하고語罷^에腦中^이跳蕩^하기를止^치아니^하니老者一^回問^하야曰技師美哥依內士나馬克이唾^를嚙^하고氣^를喘^하야曰然^하나이다技師美哥依內士로소이다老者一^曰技師美哥依內士의家^가他^{苦孟}에住^치아니^하얏느니라老者一^語를畢^쳐못^하야馬克이電^의觸發^음과雷^의轟擊^음과如^히極口^다苦^하야老者의語^가차回響^하야曰美哥依內士의家^가他^{苦孟}에住^치아니^하얏서他^{苦孟}에住^치아니^하얏서

老者一^{馬克}의狂叫^음과非常^의驚詫^음을見^고兩婦人도座^上에서起身^하고來往^하든過客二三人이俱來^하야馬克을圍繞^하니老者一^이에馬克의手^를携^고店中으로引入^하야使坐^하고曰何事로如此^히驚恐^하나爾가何事^가有^하야美哥依內士를來訪^하나爾는모름즉이絶望^치말^지어다美君이비록此地^에住^치아니^하얏스나然^이는此^에距^함이甚^히遠^치아니^하야數點鍾의距離^를過^치아니^하도다馬克이雲霓^의待澤^음과如^듯草木의重蘇^음과如^듯躍前^하야曰何處^로오^하

니內^에一客이有^하야曰此^에距^함이十五邁羅의遠^한色拉喜落의河岸^에在^하야近年^에創立^하砂糖公司가頗^히寬廠^하바, 美哥依內士의一家^가此地^에住^在하^니汝가渠家^에何人^을尋^하는지, 다만數點鍾의久^만經^하면, 是^를可^히彼處^에得^하리라^하더니, 또十八九歲된女郎이馬克의悲號^하는聲^을聞^고何事^를詢問^하다가此^에至^하야言^하야曰日前^에儂도또^하此^에居^하야美哥依內士의家^로더^러鄰^을爲^하얏노라馬克이言^을聞^고, 其前^에趨^하야女郎을凝視^하고曰敢^히姑^郎問^하하노니美哥依內士의家^中에家事^를司理^하는一婦人을見^하얏느릿가意大利人이로소이다女郎이曰有^하나이다確^的히瑞那人이니儂이曾見^하얏느니다^하니馬克이悲^하고喜^음이交^集하야忽^涕하고忽^笑하다가既^이憾發^하고, 또猛烈^한決心^을興起^하야曰請^견디諸君이我^의何處^로走^함을指示^하소서我^가即刻^에彼處^로至^하리니請^견디諸君은速^히我^가何處^로從^하야走^함을指示^하소서諸君이여諸君이여請^견디速^히示^하소서一時^에圍繞^하얏든人이異口^同音^하야曰此^에距^함이비록近^하는, 오^하려^러一日^의程^을需^하고^고, 况^汝가이^의疲乏^하야

困頓함을堪치 못할지니 今日에請컨디 此에서 一宵를留하고 明日一早에 彼處에 至함이宜하다하니 馬克曰 否! 我가 實로 一刻을 俟키 難하니 諸君々々이여 請컨디 我를 指示하시면 我가, 곳맞당히 前往하리니, 비록 路傍에서 倒斃할지라도 我가 또 懼치 아니하리라

嗟嘻다 馬克少年이여 志가 堅하고 意가 決하여 萬牛라도 留키 難할지라 아에 諸人이 其抑留키 難함을 見하고 曰 願컨디 上帝는 爾를 加彼소서 爾를 佑護소서, 우리 小意 意大利兒는 聽할지어다 此路牌로 由하여 西의 一支路로 轉하여 大道로 通過하여 一直히 行하여 深林을 穿過하면, 其彼都에 即至하리니 行하여 勉할지어다, 우리 小意 意大利國의 兒여 우리 小意 意大利國의 兒여 諸人中에 一客이 有하여, 다 시 馬克을 伴하여 街端까지 至하여 方向을 指示하고 再三丁寧하여 目으로 叱 馬克의 上道함을 送하니 夾道 疎林에 綠樹林中으로 數分鍾을 過하니 背에 旅囊을 負고 跛曳하여 行하던 少年 馬克의 背影이 見치 아니하더라
可憐하다 馬克의 病母여 當夜에 正히 危險을 際에 在하여 血管이 破裂하고 痛忍함이

難當하여, 又 號泣하는 原因으로 終夜 煩燥하여 腦筋이, 攪亂하니, 비록 看護婦二人이 左右에 常侍하고 主婦가 常時 往來하며 其間을 照顧하여 病體의 變端有無를 防하고, 又 病者가 肯히 醫家의 施治를 受치 아니함을 慮하고 明日에 醫가 來하면, 又 病者가 實로 此 痛苦를 受치 못할가 恐하여, 자 莫 焦急하고 病狀이 又 日로 其甚篤함을 見하니 然이 痛 痛苦가 稍히 減하고 狂亂이 畧平할時는 其最恐怖을 慮— 減하면 萬里故卿에 骨肉이 隔絶한 事에 腦가 紋하고 腸이 廻하여 心上으로 湧來하니 嗚呼라 體魂精神이 日로 耗亡함을 見하고 昔日의 氣體가 充融하던 軀를 廻念하고 今日 瘦骨이 柴와 如하 臂를 舉하여 頻히 短髮을 搔하고 指瓜를 斜剔하고, 又 種々 病中의 懷象이 端倪가 俱見하니 微聞한 啞斷續한 聲音으로 呼하여 曰 吾主여 吾主여 我가 遠히 離하여 死別하니 我가 竟히 我의 一家를 見치 못하도다 吾의 夫여 吾의 孩兒가, 장 々 無母의 兒가 되리로다 吾의 可愛한 馬克이여 渠의 年이 幼하여 一切의 衣食에 飽煖을 娘의 照料함을 需하니 我의 戀하는 바 可愛한 兒를 如何하여야 一見할고 噫라 如何하여야 汝等을 一見하며 如何하여야 汝等을 一見하리오 汝等이 當日에 臨行

할 때에 淚를 灑하고 訣別할 때에 吾兒가 吾懷中에 伏하여 遠離기를 肯치 아니하니
 我ㅣ今日에 思하니 目前에 在할 듯도 다 嗟呼라 如此히 別離함은 路人이 見자야도
 淚下할 앗스니 吾兒가 此의 一別에 再見치 못함을 豫知할 앗도 다 爾의 可憐함 母가 今
 에 哀痛하니 哀哉라、우리 馬克이여、우리 好할 孩兒여 吾가 寧히 吾腦를 破하며 吾
 腸을 斷하며 吾가 寧히 海를 踏고 刃을 履자야 死하드리도 엇지 能히 我가 吾兒를 思
 함과 如하며、엇지 能히 吾兒를 懷함과 如하며、엇지 能히 我가 一刻을 容緩함과 如
 하며、엇지 반다시 我兒를 見코저 恨과 如하리오 噫라 爾母가 死할 앗도 다 爾母가 死
 할 앗도 다 可憐하다 母가 無할 吾兒 馬克이여 汝는 力을 勞자야 好히 爲할 지어 다 噫라
 我主의 慈悲함이여 醫者는 速히 來자야 我의 腦를 裂하고 我의 肉을 剝할 지라도 吾는
 一切痛若를 能히 任受하리니、다만 我의 生命만 傷치 말지어다 我는 尙츠 我의 兒를
 見할 지어 다 醫者여 速히 來자야 我를 助할 지어 다 我를 助할 지어 다

此時에 主婦가 看護婦로 더브러 病者의 手足을 被中에 撫抑하고 曰勿爾어다 勿爾어
 다 密散司(婦人之尊稱)는 맛당히 精神을 精攝자야 過度히 勞碌치 말고、또 少히 神

을 養자야 安睡할 지어 다 況藥을 服하지 幾時가 못되얏도 다 病者가 이에 漸々氣가
 靜하고 言語가 微弱자야 漸次就神하더니 數分鍾을 不及자야 呼吸이 調和하고、드
 디여 疲勞자야 熟히 睡하더니 一轉瞬이 未及자야 夢中에、또 다시 驚覺자야 眼을 睜
 하고 四顧하다 欸歎함을 絕치 아니자야 口中에 仍히 嚙語를 作자야 曰吾의 瑞那여
 吾의 亞米利加여 誰가 爾로자야 今此에 生자야 茫茫大海로、어間隔하게 잇는
 노吾의 馬克이여 吾의 可愛함 馬克이여 今에 何處에 在하느뇨 噫라 我의 可愛함은 馬
 克이여 今에 何處에 在하고

時에 正히 夜半이라 靜漏三更에 壁上 鍾聲이 方히 鏗々한 二點의 響을 報하니 此時此
 境에 病母가 方히 嚙語를 絕치 아니자야、엇지 憶念하느뇨 馬克이 長夜는 迢々하고
 深林은 寂々하니 南北亞米利加洲의 有名한 鬱林中으로 馳奔하느뇨 矧知하리오 怪樹
 와 巨木은 殿院의 大圓柱와 如히 轟然히 直立자야 月이 白하고 風이 凄하니 怪鳥가 鳴
 歎자야 上下로 飛翔하고 踈枝와 老幹은 微月의 光을 掠照자야 僅히 其頂만 露자야 或
 縱자야 或橫자야 或偃臥자야、或斜자야 龍或과 如히 蟠자야 蠖과 如히 屈자야 枝々

幹々히 大半이 蒼蘇의 蒸은 비되야 氣味가 薰惡하야 半明半暗한 間에 搖蕩하고 時
 로 巨塔의 倒은 影과 時로 大木의 橫은 影에 荊棘蔓蘿가 衣를 牽하고 袖를 刺하며 偶히
 燐火가 眼을 射하디 點々한 零星과 如하야 滿徑紅躑躅이 風에 搖하고 露에 墜하듯
 하야 馬克이 零噤하고 恐怖하야 毛骨이 慄々하디 兩足이 透迤하야 一步도 進기 難을
 覺하고 森嚴하고 壯偉하며 奇醜하고 怪態한 植物이 地球面上에 大奇觀을 呈露하
 야 遽히 來하야 馬克眼中에 奔走하고 馬克의 腦際로 襲擊하나 馬克이 懵然하고 惘然
 하야 心中과 腦中에 一慈母만 滿裝하고 他物이 能히 其位實를 爭함이 無할 것갓더라
 漸々此 鬱林을 行하야 盡하디 渠가, 비로소 見하니 月色이 黑暗하디 二三人家의 影
 이 望하기 幽窈하야 遠近의 間에 漸緊하야 村落이 有하고 屢見한 路傍堤側에 橫臥
 한 水牛가 黑暗한 中에 不覺然히 猛驚을 너라

馬克이 身이, 비록 疲勞하나 實로 其 疲勞함을 覺지 못하고 身이, 비록 孤寂하나,
 不覺其 孤寂함을 見치 아니하야 鬱林의 雄麗하고 壯偉함을 馬克의 精神과 馬克의 勇
 氣로써 敵하야 足이 懼할 것이 無하고 足히 奇할 것이 無하더라 馬克이 其母의 在할 바

를 思함의 其 膽氣와 魄力의 雄偉함이, 不覺成人으로 異함이 無하더라 迴念하디 當
 日 海航中에 沉悶하든 것 과 哥而特 孛로 自하야 他 苦孟에 至하던 間에 商隊에 附하야
 同行하든 艱難辛苦가 足히, 此 艱難辛苦를 對抗하든 者一 全히 此 一片 鐵石의 心
 을 恃하야, 岌忍耐하얏도다 馬克이 念이 此에 及하야 眉가 軒하고 氣가 昂하야 拳을
 握하야 瓜를 透하니 瑞那의 熱血이 海潮의 勢와 如하야 此 馬克의 心腦에 奔赴 逆流하
 는 듯하도다 不寧惟是라 馬克의 腦髓와 心目中에 一母의 狀態가 深印하야 時로 母의
 容顏이 深印하디 彷彿히 或遇하듯하더라 蓋膝下를 睽離함이 二年이 되야, 眞실로
 一日이라도 腦中에 去하지 아니하야 心頭에 歷々하디, 오허려 昨日과 如하야 目を
 閉하고 神을 攝한 母의 面을 見함과 如하고 馬克이 母의 傍에 在하야 語하든 것갓치
 母의 態度가 若何함과 母의 精神이 若何함과 母의 耳目口鼻가 如何함을 想豫한 餘에
 此로 以하야 美滿한 思想을 獎勵함으로 奔馳의 苦를 覺치 못하니 嗟呼라 馬克이 無量
 한 愛情과 可히 思議치 못할 愛情으로, 此一時에 熱淚가 橫流하야, 드디어 排紅한
 雙頰에 傳하더라 嗟喜다 馬克이 此 黑暗한 世界에 行々止々하다가 恐怖가 萬狀한 지

라馬克의身이母傍에在호체호야聲을高호야呼호야曰母여兒가此에在호도다爾의馬克이가母의傍에在호니兒는願컨디다시一步라도母를離치아닐지니母는兒로더부러故郷에同返호지니다船中이라도兒는또、호我母를輕離치아니호리로다母여兒는願컨디世々生々에我에母를離치말지어다我는願컨디萬劫千難이라도我의母를離치말지어다此時에東方이微露호고曉露가衣를侵호야殘月은深林에沉호고旭日은危塔에耀호니馬克이여馬克이여汝가、이의千山萬水에奔涉호는디病호얏고我도、또筆이枯호고墨이宛호야寫字에疲호얏스니汝도汝의母를見호時代가至호얏도다

晨八點鍾에亞而存郷에年少호達格探(醫士의稱)이他苦孟에至호야其補助醫(醫士의副)로더브리其治病호는手術을施코져호야最後에勸諭를爲호야垂死호病婦枕畔에立호고美哥依內士도、또호傍에從호야極히誠懇의譬諭를爲호는然이호再三反復호디徒勞에終屬호고、또病者도一身에氣力이全然히消耗호야一時에下手호면反히生命을成호가恐호고、또施術호下에반다시遽히死치호아나호

는此痛苦를受호後에數點鍾의久만延生치못호를告知호니達格探이、다시譬解호야曰請컨디心を安호고慮치勿호지어다此治療의法이極히安全호고爾의精神과氣力이、오히려可히支持호리니汝가今에비록堅拒호는萬一此를因호야不慮호이有호면悔호들晚호도다호니病婦一聲을微호야答호야曰否라妾이、또호畏死호는者가아니라、진실로無益호痛苦를甘受치안코져호노니願컨디平和의一死를受호노니다願컨디平和의一死를受호노이다호니此時에達格探等이懽然히嚙호야聲을出치아니호고一人이라도敢히一語를發치못호더라

後數分鍾間을過호後에病婦가徐々히面을主婦의向호고垂死호聲으로最後의祈禱로、岷다시歎歎호기己치아니호야其哀願을訴호야曰吾의慈悲호主人이여吾의寬宏호夫人이여我는願컨디此에少許金과吾의身의附호記念物로岷意大利領事館에依賴호야、우리故郷으로送歸케호소서我는望호노니我의一家의人은災를息호고事가無케호소서人이장호死호디言이善호다호니願컨디우리夫人은我의장호咽氣호一語를聽호지어다我의懸호호는、다만此의一事라我가日이호

夜十二時中에渠等を記憶하고渠等を思念치아니치아니하얏도다我가渠等を爲하야二萬里外에跋涉호지라我의第一遺憾은수으로自하야一瞑호면竟히一見치못호리니、 비록然호는我의精神이、 일즉攪亂호아니호니嗚呼라吾의夫여吾의長子여吾의少子여噫라吾의馬克이여吾가汝를見치못호니目を瞑치못호리로다하고此時에病者가다시頭腦가脅亂호고神志가迷惘호야雙手로撐支호고顫動함을已치아니호야低呼호고銳히叫호야曰噫라我兒의馬克이여吾의姓名아……語가此에至호다가淚珠가眸에盈호고周迴四顧호야其主婦를索호는것갓호는主婦가、 이의牀前에在치아니호니蓋人의呼호리되야出호얏더라

病婦가主婦가牀前에在치아님을見호고主人을顧視호니、 또호他로去호얏는디鄰室中에私語를聞호즉啣嚙호고蹙音이雜遝호야驚歎호는聲이有호거늘兩目으로、 扃房門의口를直이注視호니數分鍾의久를經호미、 비로소醫者가房으로入來호고繼호야主人의夫婦가袂를聯호고進호더니三人이、 또다시頭를交호고密語호야甚히驚異호事가有호듯호더니未幾에聞호즉醫者가主婦다려謂호야曰寧

히此事로啣直告호리라寧히此事로啣實告호리라호는終히其語호는바意가何를謂호인지解치못호리라

此時에主婦가巍顛의聲으로病者를向호야曰我가汝의게大喜함을報호리라汝는喜가極호야狂치말지어다病者가兩目으로主婦의面을直視호고其謂호는바를知치못호더니主婦가更히急呼호야曰喜報라汝가大喜가有호야頭에臨호얏도다다시時에病者가眼이微히活動호는지라主婦가、 다시語호야曰汝는狂喜치말지어다汝가、 장호愛憐호고、 가장憶憐호는맛者一至호얏도다病者가力疾호야頭를擡호야始에主婦를凝視호고繼호야眼을戶口에轉호더니仍호야其言호를바를解치 못호니主婦曰吾가實로汝의게告호노니汝가汝의意外의出호人이此에到호야汝를訪호얏도다病者가奇銳호一聲을猛發호야曰何人인고호더니語가罷호미氣가喘호호이已치아니호니斯時에病者가正히膝을盤호고病榻에跌坐호니幽暝의界가眼前에出現호는것과彷彿호야雙手로頭를枕호고假寐호야懵沈호고迷替호야目を舉호야四顧호니甚히疲困호者와如호더라

衣履가 變垢하고 遍體에 泥를 塗호니 馬克이 達格探으로 手을 携호고 病房에 入호야
 達格探의 身後에 隱호야 戶限의 上에 高立호얏더니 病母가 偶爾히 目을 廻호다가 驚
 然히 遇見호고, 哭狂호호야 曰噫라 我主여 我主여 此時에 馬克이 病母의 懷中으로
 直走호니 病母가 直히 其 瘦骨이 柴와 如호 雙手로 虎와 如호 力을 出호야 馬克을 腦間
 을 緊抱호더니 始에는 潛然히 泣호고 繼호야 輾然히 笑호더니 終에는 皇然히 疑호야
 忽然히 伏倒호고 忽然히 起坐호야 喜가 可히 支치 못호고 殆히, 장스 發狂호지라,
 이에 馬克의 頭를 捧호고 吻을 接호야 曰兒가 如何히 此에 來호얏느냐 兒가 如何히 此
 에 來호얏느냐 噫라 果然 我의 家兒나 家中의 大人輩가 安호나 何人이 兒를 伴호야
 來호얏느냐 嗟라 果然 兒의 一人만 來호얏느냐 我의 兒 馬克이여 我가 病中에 眼花호
 야 汝를 錯認치 아니호얏느냐, 또 我가 夢中이 아니냐 馬克아 我의 好兒여 爾가 我를
 念호는 가 爾가 爾의 垂死호는 母를 思호는 나호다가 語가 此에 至호야 突然히 馬克을
 推호야 下호라호고 曰否라, 또 少待호지어 다호고, 이에 頭를 回호야 達格探을 見호
 고 語호야 曰 達格探은 速히 來호지어 다 余가 精神이 充足호고 氣力이 完固호야 一時

의 間에 苦호는 바를 失호는 듯호니 汝는 또 暫히 他에 往호지어 다 馬克아 驚惶치 勿호지
 어 다 汝는 我를 一刻만 暫移호고 去호야 休호지어 다 達格探은 速히 來호라 速히 來호
 라 馬克이, 이에 房外로 退出호고 主人 夫婦와, 媢婢女等이, 다 疾忙히 退去호니 達
 格探이 補助醫로, 더브러 房中에 獨留호고, 드티어 門을 闔호는 지라 美哥依內士
 君의 夫婦가 馬克의 手를 携호고 廊下에 出호야, 다시 一別室中으로 誘往호지호니
 或 馬克이 其母의 痛苦호고 呻吟호는 聲을 聞호고 悲懼호며 駭愕호가 恐호이러라 馬
 克이 肯치 아니호고 屹立호야 動치 아니호니 呆호기 木鷄와 如호다가 既而 問호야
 曰 何事로 渠等이 我의 母를 如何히 處寘호저호느냐 渠等이 我母를 如何히 處寘호저
 호느냐

美哥依內士君이, 오히려 馬克의 臂를 執호고 促호며, 다시 低聲호야 曰汝는 我言
 을 聲호라 汝母가 病을 患호야 醫者의 治療를 受호니 汝는 我로, 더브러 此間에서 游
 玩호야 我가 汝로, 더브러 語호리니 來호라 來호라 馬克이 搖首호야 曰我가 此에 在
 호야 動치 아니호고 細聽호리라호미 美哥依內士君이, 다시 再三勸導호디 馬克은

戰際음을已치아니하더니突然히聞을즉悲鳴을一聲警이窓屋을透하야聽는지
 라馬克이驚駭하야絶코저하다가遽히躍上하야曰噫라我的母가如何하노하니達
 格探이房門의外에立하얏다가曰敬히賀하노라爾의母가慶을得하야更히生하얏
 도다馬克이達格探의面을注視하다가忽히床前에跪하야曰多謝로소이다達格探
 이여흐대達格探이馬克을扶起하야曰起하라起하라汝의母를愈케하노者는我的
 力이아니라우리、馬克의功이로다

教育
小說

伊太利少年 終

法國 愛彌兒拉氏原著

大韓 李採雨氏譯述

張志淵氏校閱

政治小說

愛國精神

全一册八十餘頁

純國文

正價金二十五錢

二十錢

△本書는法國이西歷一千八百七十年戰爭의敗衄으로因하야亞魯二省의國土를
 割讓하고五億萬佛의賠款을償與후後國勢一萎靡하며民生이塗炭이로되能舉國
 이一致에臥薪嘗膽하야不數年而元氣恢復矣요不數年而遂欲與普開釁하야思復
 昔年之仇矣라迄今問之건디點世界第一等之陸軍力하며居世界第二位之海軍國
 土야爲世界最富強之國이非法國而誰也아觀此一書면足以窺見當時慷慨悲憤之
 一斑矣리니是豈非今日國民之所模範者耶夫이

發行元

皇城 中署 罷朝 橋越邊

中央書館

分售處

京鄉各有名

特約書店

趙聲九

撰述

地方行政論

全壹冊
定價金
三十錢

▲本書는地方自治行政에關한壹般의原則과外國의現行制度를參互撰集한야
簡明이論述한者—니現히地方官의位에在한者의行政上參考됨은勿論이오全
國人士는各其團體生活의本旨를瞭解한야將來自治制度組織의基礎를成한者
—니有志僉彦은速々購覽한시옵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
發售處 京城及地方 各書肆

家庭
小說

菊初先生 李人植氏 著

鬼의聲

表紙石版寫眞

全上下編
正價 金六十錢

本小說은著者가我韓家庭社會의風化腐敗함을痛戒한야一部諷刺的小說로主人
公金承旨夫人을假托한야其小室姜娘子其夫人의妬忌惡行으로凶婢의手에暗殺
을遭함과其夫人及兇僕이姜娘生父에대復讐의慘殃을反受한은事實을詳細著述
한야有妻卜妾의男子와嫉妬惡習의婦人과賴德招婿의愚父와貪財殺人の奸婢을
一体警戒함이오其悲憤壯快한全篇趣意가可使讀者로愛惋의悲淚를自流케하며
稱快의叫聲을不覺케한지니讀者諸君은必試一讀한시와家庭裡面의鄙風敗俗을
鑑戒할지어다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
發售處 京鄉各有名 特約書店

清國 梁啓超 原著 韓國 李輔相譯述

葛蘇士傳

(表紙石版)
匈牙利國旗

全一册 (國漢文)
正價 金十五錢

△本書는 歐洲風雲을 震撼하고 自國獨立을 力圖하던 匈牙利愛國偉人 葛蘇士의 事蹟을 綱羅著輯한 者이니 當時葛蘇士의 雄飛活躍의 經歷과 及其英雄末路의 不運을 隨하여 奧匈聯邦의 雙立國體를 竟成한 結果을 觀건디 可使讀者로 英雄崇拜의 感想을 激起케 할리로다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

隆熙二年十月二十五日印刷
隆熙二年十月二十八日發行

伊太利少年全一册
正價 金二十錢

譯述者 李 輔 相

京城中部罷朝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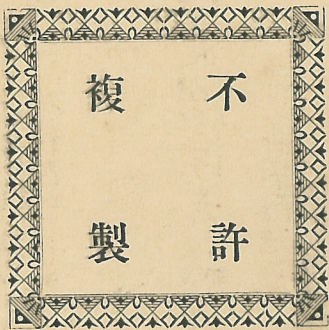
發行者 朱 翰 榮

京城明治町三丁目

印刷者 相 馬 俶 治

京城明治町三丁目

印刷所 日韓印刷株式會社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

△新小說出版豫告▽

○成功偉人富蘭克林自叙傳

(國漢文全一冊)

○英國海軍提督羅爾遜傳

(國漢文全一冊)

○稗史小說鐵

世 界

(純國文全一冊)

○歷史小說虞美人

(國漢文全一冊)

○探偵小說指

環 黨

(國漢文全一冊)

○政治小說秘密世界

(國漢文全一冊)

○探偵小說二

名 刺

(國漢文全一冊)

○寫情小說恨海春秋

(國漢文全一冊)

○家庭小說鴛

鴛 圖

(純國文全一冊)

○社會小說啞旅行

(國漢文全二冊)

發行元

皇城中部罷朝橋越邊

中央書館